

晉州內村里遺蹟 出土 粘土帶附口緣土器

沈 奉 謹

Sim, Bongkeun

東亞大學校 考古美術史學科教授

1. 머리말

동아대학교 박물관에서는 지난 1996년 11월 20일부터 1997년 3월 19일까지 120일간에 걸쳐 慶尙南道 晉州市 大坪面 內村里 일대에 분포하고 있는 문화유적에 대한 발굴조사를 실시하고 최근 보고서를 간행한바 있다.¹⁾ 周知하다시피 조사는 南江댐 보강공사로 晉州市域과 山淸郡域 일부가 수몰되는 일이 발생하여 실시되었고, 동아대학교 박물관에서는 청동기시대 지석묘와 삼한시대 주거지가 함께 분포하는 내촌리유적을 담당하게 되었다. 당시 조사과정에서 필자가 주목했던 점은 삼한시대 주거지 내부에서 청동기시대 무문토기 전통을 계승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점토대부구연토기(이하 점토대토기로 명칭함)가 혼재하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그것은 전대인 신석기시대나 청동기시대에 자주 볼 수 있던 점토대토기의 전통이 삼한시대까지 잔존하는 예가 드물었기 때문이다. 이 경우 여기서 출토된 점토대토기의 제작수법과 계통, 분포, 제작시기 등의 제 특징을 통해서 삼한시대토기의 제작과 변천과정은 물론 전과과정을 연구하는데 있어서도 좋은 자료가 될 것으로 판단되어 이번 기회에 관련자료를 다시 정리해서 이를 게재하게 되었다.

2. 유적의 환경

내촌리유적은 행정구역상 慶尙南道 晉州市 大坪面 內村里 314-1~7번지에 위치하며 晋陽湖 상류의 德川江유역이다. 이곳 지형은 基盤岩인 風化巖盤層

1) 沈奉謹, 『晉州內村里遺蹟』, 東亞大學校 博物館, 2001

위에 제4기 洪績世의 적갈색 퇴적층이 被覆된 해발 43m정도의 낮은 구릉지대를 형성하고 있는데 그 정상부에 지석묘, 정상부에서 그 아래 해발 38m지점 사이의 북동쪽 경사면에 주거지가 각각 분포하고 있다. 이 구릉에서 북서쪽 논의 있는 좁은 계곡을 사이에 둔 구릉 위에는 舊石器時代 유물포함층이 있고²⁾ 남쪽과 북쪽에 연접한 주변의 沖積臺地에는 本村里遺蹟³⁾을 비롯해서 上村里⁴⁾, 大坪里⁵⁾, 召南里와 默谷里遺蹟⁶⁾ 등 신석기시대에서 청동기시대에 걸쳐 형성된 각종 유적들이 분포하고 있다.

지리적으로 내촌리는 우리나라 남해안에서 그렇게 멀리 떨어진 곳이 아니면서 서쪽으로 智異山이 근접해서 위치하여 마치 內陸의 奧地와 같은 느낌을 주기도 한다. 그러나 지리산에서 발원하는 대소 河川을 水路로 이용하여 이동한다면 남해안에 이르는 길은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발달된 수로와 주변에 형성된 충적평야 등의 자연환경은 선사시대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인류가 활동하는데 있어서 편리함을 제공해 주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古수를 막론하고 인류활동이 산이나 바다, 하천 등의 자연환경을 이용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남강유역의 충적대지나 구릉지는 주거지를 비롯한 경작지, 분묘 등 인간의 생활무대로서는 훌륭한 입지조건을 갖춘 무대가 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내촌리유적 역시 그런 환경을 배경해서 생성된 문화유적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조사당시 유적이 분포하고 있는 구릉일대는 잔디를 심은 묘포장이었으나 과거에는 감자나 고구마 등의 球根類와 배추, 무 등의 菜蔬類 그리고 보리, 밀,

2) 당시 한양대학교 박물관에서 조사하였다.

金秉模·俞炳燐·任惠娟, 『晉州 內村里 古墳群 遺蹟』, 漢陽大學校 博物館, 1999

3) 당시 경상대학교 박물관에서 조사하였다.

4) 이 유적은 그 분포 범위가 넓어서 동아대학교, 한양대학교, 건국대학교, 대전보건대학, 그리고 동의대학교 박물관에서 각각 조사하였다.

김병모·김아관·박희명, 『晉州 上村里 2號 支石墓 및 先史遺蹟』, 漢陽大學校 博物館, 1999

최무장, 『晉州上村里 3~8호 支石墓 및 先史遺蹟』, 건국대학교 박물관, 2001

沈奉謹·李東注·田中聰一, 『晉州上村里先史遺蹟』, 東亞大學校 博物館, 2002

5) 이 지역은 진주박물관을 비롯해서 경남문화재연구원, 경남고고학연구소, 경남대학교, 선문대학교, 경상대학교, 동의대학교, 동아대학교 박물관 조사단에 의해 나누어 조사되었다.

趙榮濟·柳昌煥·宋永鎭·孔智賢, 『晉州 大坪里 玉房3地區 先史遺蹟』, 慶尙大學校 博物館, 2001

國立晉州博物館, 『晉州 大坪里 玉房1地區 遺蹟』, 遺蹟調查報告 14冊, 2001

李亨求, 『晉州 大坪里 玉房5地區 先史遺蹟』, 鮮文大學校, 2001

6) 이 유적은 신라대학교 박물관에 의해 조사되었다.

콩, 팥 등 穀物類를 재배하는 경작지로 주로 활용해 왔다고 한다. 그 과정에서 적갈색 퇴적토로 被覆된 지표면은 대부분 교란되고, 그 속에 분포하고 있던 유구와 유물이 지상에 노출되는 등 그 훼손이 막심했던 것으로 짐작된다. 특히 동쪽 구릉 하단은 기존의 댐 수위가 간혹 氾濫하면서 주거지 바닥을 파괴시키기도 하고 구릉 정상부의 경우는 근대 민묘가 축조되면서 지면을 훼손하는 등 원상유지가 어려웠다.

3. 점토대토기가 출토된 주거지

당시조사는 대상지역 전면에 대해서 사방 30m 크기의 그리드를 먼저 설치고 조사구역을 세분한 뒤, 각 그리드 중간에 남-북축으로 폭 1m크기의 독을 남기면서 표토 제거작업을 실시하였다. 작업도중 지표면에서 10cm-20cm 깊이에서 대부분 주거지 바닥이 확인되어 어깨선의 상단이 대부분 훼손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래서 지표상에 토기편이 집중해서 채집된 동북쪽 경사면 전체에 대한 표토 제거작업을 계획하고 작업을 진행시킨 결과 40여기에 달하는 주거지 평면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중 점토대토기가 출토된 주거지는 제 18, 27, 28, 35, 37, 38호 정도였다. 내촌리 주거지의 공통적 특징은 평면 원형의 수혈주거지로서 대부분 어깨선부분이 훼손되고 겨우 바닥만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내부 교란으로 출토유물 가운데는 인접한 유구의 것이 혼입 될 가능성도 없지 않았다. 예를 들면 제 27호와 28호, 제37호와 38호는 근접하고 있어서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여기서는 서로 독립된 유구에서 출토된 것으로 파악하고 우선 해당주거지와 출토유물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한다.

먼저 제18호 주거지는 제17호 동쪽 낮은 곳에 제20호와 중복되어 나타난 평면 원형의 것이다. 어깨선 내부에는 자연석이 혼재된 부식토가 퇴적되고 바닥은 동쪽부분이 훼손되었으나 나머지는 원상에 가까웠으며 평면이 약간 길쭉한 타원형을 띠고 있었다. 바닥 일부가 훼손된 것은 뒷날 민묘 축조와 관계가 있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바닥 가장자리에는 오목하게 파인 壁溝가 남아있고 노지, 주혈 등 주거지와 관련된 다른 시설들은 확인되지 않았다. 비교적 교란흔적이 적은 서쪽 바닥에는 자연석과 함께 토기편, 철기편이 무질서하게 흩어져 있었으며 주거지 직경 724cm, 양호한 곳의 깊이 28cm규모의 대형에 속하는 것이었다.

여기서 출토된 유물은 적갈색 연질토기와 회청색 연·경질토기, 회백색

연질토기, 철기 등이다. 그 중 적갈색토기는 옹형 구연부와 저부, 그리고 손잡이 파편인데 태토에는 사립이 혼재하고 기벽이 얇으며 내외면 산화가 심한 것인데 우각형 손잡이는 단면이 원형의 것이다. 회청색 경질토기는 고배각부 파편으로 무투창이며 짧고 끝이 벌어진 것이다. 회청색 연질토기는 대형 장경호 파편인데, 건부에 흑과 같은 돌기가 있고 표면에 網狀文이 타날되어 있다. 회백색 연질토기는 호형토기 동부 파편이며, 표면 산화가 심하고 타날문이 남은 것이다. 철기는 鑄造 鐵斧의 銚部 파편으로 장방형을 띄는 것이다. 함께 출토된 점토대토기는 전형적인 청동기시대 무문토기와 유사한 것이다. 즉 태토에 사립이 혼재한 흑갈색 연질로서 단면 장방형 점토대를 구연부 외측에 덧대어 보강시킨 다음 그 위에 새김문을 촘촘히 넣어 이음을 튼튼히 하고 있으며 불 위에 오래 사용한 탓으로 표면이 검게 그을려 있는 것이다. 구연부가 직립하고 단면 장방형 점토대는 남해안지역의 후기신석기시대 토기는 물론 서울 가락동⁷⁾, 진주 상촌리유적⁸⁾ 등 청동기시대 비교적 이른 시기부터 나타나는 특징을 가진 것이어서 그 원류가 주목된다.

다음 제27호 주거지는 취락 서쪽의 높은 구릉 위에 위치한 평면 원형의 것이다. 이 주거지도 어깨선 평면이 길쭉한 타원형이며 북쪽은 어깨선이 바다에 맞붙을 정도로 내부 퇴적층이 얇았다. 표토층을 제거하자 곧장 토기편과 자연석들이 혼재된 퇴적층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퇴적층이 얇은 북쪽에서는 곧장 바닥이 나타났다. 내부 조사과정에서 퇴적층이 두꺼운 남쪽부분에서 교란이 주로 이루어진 사실이 확인되었는데 이렇게 교란이 심한 곳에서는 유물도 수습되지 않았다. 한편 바닥 내부 동쪽 어깨선 가까운 부분에서 노지로 추정되는 타원형의 오목하게 파여진 소토면과 어깨선 가장자리를 따라 오목하게 둘러진 壁溝가 확인되었고 남서쪽 벽구 바닥에서 壁體와 관련된 것으로 추정되는 소형 柱穴이 두 곳에 남아있었다. 토기편은 주로 노지 주위와 서쪽 바닥에서 수습되었으나 모두 바닥에서 5cm-10cm정도 뜬 상태였으며 주거지 추정직경 704cm, 양호한 곳의 깊이 32cm규모의 대형에 속하는 것이었다.

여기서 출토된 유물은 적갈색 연질토기와 회백색 연질토기, 회청색 경질토기편, 방추차, 砥石 등이다. 적갈색토기는 옹형, 발형토기 구연부와 저부 그리고 손잡이 파편인데 태토에는 사립이 혼재하고 기벽이 얇으며 내외면 산화가 심한 것이다. 우각형 손잡이 단면은 원형이며 발형은 구연부 외벽과 저부 내벽에 손끝으로 누른 성형자국이 남아있다. 회백색 연질토기는 발형, 고배각

7) 金廷鶴, 「廣州 可樂里 先史住居址 發掘報告」 『古文化』2, 1963

8) 沈奉謹, 「晉州 上村里出土 無文土器 新例」 『文物研究』3, 동아사이언스연구소, 1999

부 파편인데 표면의 산화로 특징 파악이 어려운 것이다. 회청색 경질토기는 호형 구연부 파편으로 구연부가 비틀러진 형태의 것이며 견부에 타날문이 있다. 방추치는 적갈색 또는 흑갈색을 띠는 연질의 것으로 표면 산화가 심하고 중간에 菱角을 가진 것과 圓錐形인 것 등이며 砥石은 사암제로 전후 양면에 마연흔이 남은 것이다. 여기서 수습된 점토대토기는 전기한 적갈색 연질토기 가운데 발형으로 추정되는 것이다. 즉 외반된 구연부 내외면에 지두문을 남긴 것으로서 구연부 보강을 위해 외측으로 점토대를 덧대고 이음을 튼튼히 하기 위해 손가락 끝으로 누른 것이다. 이렇게 외반된 구연의 것은 전대의 단면 삼각형 점토대부구연에서 점차 퇴화된 형태로 보인다. 특히 태도에 사립이 혼재된 연질의 무문토기라는 점은 그 계통을 명백히 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다음 제28호 주거지는 취락 서쪽의 높은 구릉 위에 전기한 제27호와 나란히 위치한 평면 원형의 것이다. 어깨선 평면이 약간 삼각형을 띠는 듯한 부정원형이며 북쪽부분이 많이 훼손되고 퇴적층이 매우 얇다. 여기서도 비교적 퇴적층이 두꺼운 남쪽 표토층을 제거하자 곧장 토기편과 자연석이 혼재된 채 나타났다. 바다 내부에서 주목되었던 것은 남동쪽 어깨선 주위에 段狀의 선반을 설치하고 있는 점이었다. 형태는 약간 불규칙하지만 바다보다 약 7cm 높이정도 생토층을 파지 않고 그대로 남겨둔 상태이다. 여주 혼암리유적⁹⁾이나 일본 야요이시대 후기에 해당하는 주거지¹⁰⁾에서도 이런 특징을 가진 것이 나타나고 있다. 선반 주변에 爐址가 있는 것을 참고한다면 음식과 관계되는 재료나 생활 도구 등을 올려놓았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노지는 바다 동북쪽에 점토를 쌓아 설치한 것인데 대부분 파괴되고 오목하게 깔린 燒土와 주위에서 木炭, 燒土, 토기편들이 퇴적되어 있는 것만 확인되었다. 유물은 주로 노지와 남서쪽 바닥부분에서 수습되었는데 모두 5cm-10cm정도 뜬 상태였으며 주거지 추정직경 560cm, 양호한 곳의 깊이 26cm 규모의 중대형에 속하는 것이었다.

여기서 출토된 유물은 적갈색 연질토기와 회백색 연질토기 등이다. 적갈색토기는 옹형, 발형토기 구연부와 저부 그리고 손잡이 파편인데 모두 태도에 사립이 혼재하고 기벽이 얇으며 내외면 산화가 심한 것이다. 손잡이는 단면 원형이고 발형의 경우 구연부 외벽에 손끝으로 누른 성형자국이 남은 것이 있으며 시루바닥도 있다. 회백색토기는 호형, 토배 편인데 표면 산화로 특징파악이 어려운 것이 대부분이지만 견부에 타날문이 있는 것도 섞여있다. 점토대토기는

9) 1976년에 조사된 제14호 주거지 내부에서 폭 1m, 높이 20cm 규모의 선반형 구조가 발견되었다. 서울대학교 박물관, 『欣岩里住居址 4』 考古人類學叢刊 第8冊, 1978

10) 河出書房新社 『日本の考古學Ⅲ(彌生時代)』, 1965

적갈색 연질의 발형으로 추정되는 구연부 파편이다. 내외면 산화가 심해서 자세한 특징은 파악하기 어렵지만 외반된 구연부 외측에 단면 장방형의 점토대를 덧붙이고 그 위를 손가락 끝으로 눌러 이음을 튼튼하게 하는 구연부 보강수법은 전자와 동일하다. 역시 외반된 구연부에 외측으로 점토대를 보강한 수법은 단면 삼각형 점토대토기의 퇴화된 계통으로 보인다.

다음 제35호 주거지는 제33호에서 동쪽으로 제33-1호, 제34호와 함께 중복되어 나타난 평면 원형의 것이다. 제33호와 제33-1호의 동쪽 상면을 일부 파괴하고 축조한 것인데 제34호는 다시 이 주거지 바닥 절반정도를 침범해서 절개시키고 있다. 따라서 제33호 보다는 늦게 그리고 제34호 보다는 먼저 축조된 것이다. 잔존한 어깨선의 경우 서쪽과 남쪽은 輪廓이 뚜렷하지만 나머지는 훼손되어 원상을 알아보기 어렵다. 퇴적토는 어깨선이 남아있는 남쪽이 약간 두껍고 북쪽은 바닥이 지상에 노출될 정도로 훼손이 심하다. 이렇게 잔존한 퇴적토 속에서 토기편 일부를 수습하였으며, 현존하는 바닥은 원상에 가깝다는 느낌을 받았다. 남쪽 어깨선 바로 아래 소형 竪穴이 있었는데 그 내부에서 파손된 토기편이 수습되었다. 당시 느낌으로서는 저장공이라고 판단되었으며 서쪽 바닥에서는 토기편과 함께 鐵釜가 수습되었다. 그러나 爐址나 柱穴과 같은 주거지와 관련된 시설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주거지 추정직경 756cm, 양호한 곳의 깊이 35cm규모의 대형에 속하는 것이었다.

여기서 출토된 유물은 적갈색 연질의 무문토기 파편과 회백색 연질토기 파편, 토추, 철부 등이다. 그 중 적갈색 연질토기는 옹형, 발형의 구연부와 손잡이 파편인데 태토에는 사립이 혼재된 연질의 것으로서 표면에 타날문이 남은 것도 있다. 회백색토기는 호형의 구연부 파편인데 표면 산화가 심한 것이고 토추는 무문토기와 동일한 태토와 소성도를 가진 것이다. 철부는 장방형의 주조품으로 刃部는 등글고 釜部는 사다리꼴이며 표면 산화가 심한 것이다. 여기에서 수습된 점토대토기는 2점인데 그 중 1점은 단면 원형의 우각형 손잡이를 가진 옹형으로 시루일 가능성이 많다. 약간 외반된 구연부 내측에 단면 장방형의 점토대로 보강하고 있다. 다른 1점은 옹형토기 구연부 파편인데 역시 동일 수법과 형태로 구연부 내측에 점토대로 보강하고 있다. 이 경우 동체부에 타날문이 선명하게 남아있어 앞에서 소개된 자료들과는 약간 차이가 있는 것이다. 즉 이 주거지 자체도 늦은 시기로 분류되는 것인데다가 토기 표면에 남아있는 타날문 정형기법은 점토대토기 가운데 시기적으로 늦은 신식임을 증명하고 있는 듯하다.

다음 제37호 주거지는 취락 북쪽으로 치우친 곳에 제38, 39호와 함께 중

복되어 나타난 평면 원형의 것이다. 이 주거지는 제38호 바닥에 걸쳐있고 제38호는 다시 제39호 바닥 대부분을 파괴하고 있어 제39호가 가장 먼저, 다음 제38호, 마지막 제37호 순서로 축조되었음을 알 수 있다. 잔존한 어깨선 내부 바닥에는 燒土와 木炭이 혼재된 부식토가 두껍게 깔려 있었는데 그 중 소토 덩어리는 壁體나 天井의 함몰이 아니면 爐址나 窯址와 같은 내부시설이 파괴된 것으로 추정되었다. 조사과정에서 바닥 곳곳에 흩어진 자연석과 토기편 일부가 수습되었으나 노지나 柱穴과 같은 주거지와 직접 관련된 시설들은 확인하지 못했으며 주거지 추정직경 666cm, 양호한 곳의 깊이 44cm규모의 대형에 속하는 것이었다.

여기서 출토된 유물은 적갈색 연질의 무문토기, 회백색 연질토기 파편 등이다. 그 중 적갈색토기는 옹형 구연부와 저부 파편인데 점토대 구연을 가진 것도 있다. 모두 태토에는 사립이 혼재된 연질의 것으로서 내외면 산화가 심한 것이지만 저부편은 표면에 타날문이 선명하고 내면에는 손끝 누른 자국이 남아 있다. 회백색토기는 호형 구연부 파편인데 표면이 산화되어 특징 파악이 어렵다. 특히 점토대토기는 외반하는 구연부 내측에 단면 장방형의 점토대로 보강한 형태인데 함께 타날문이 새겨진 옹형토기가 수습되는 것으로 미루어보아 역시 늦은 시기로 편년되는 것이라고 추정된다. 주목되는 것은 전기한 제35호와 함께 점토대를 구연부 내측에 보강하고 있는 점인데 그것은 시기적으로 늦은 신석에 해당하는 것을 증명한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 제38호는 전기한 제37호 북동쪽에 제39호와 함께 중복되어 나타난 평면 원형의 것인데 제39호-제38호-제37호의 축조순서를 가지고 있다. 내부 퇴적토는 남쪽이 약간 두껍고 북쪽으로 갈수록 얇았다. 따라서 퇴적층이 두꺼운 남쪽 바닥에는 자연석과 토기편이 일부 잔존하고 있었으나 나머지 대부분은 모두 유실된 상태였고 주거지 추정직경 776cm, 양호한 곳의 깊이 20cm 규모의 대형에 속하는 것이었다.

여기서 출토된 유물은 적갈색 연질의 무문토기, 회백색 연질토기 파편, 砥石 등이다. 그 중 적갈색토기는 옹형, 호형, 발형의 구연부, 저부와 손잡이 파편 등이다. 모두 태토에는 사립이 혼재된 연질의 것으로서 내외면 산화가 심한 것인데 표면이 검게 그을린 것이 많다. 회백색 토기는 발형의 구연부 파편이며 표면의 마멸이 심해 특징을 잘 알 수 없는 것이고 砥石은 사람제로 마연흔이 남아 있다. 점토대토기는 구연부가 외반하는 옹형의 구연부편으로 기벽이 매우 얇고 표면이 검게 그을린 것인데 외측에 단면 장방형의 점토대를 보강하고 있다. 형태상으로는 이곳 토기 가운데 비교적 이른 시기로 편년되는 기형을 가진

것이다.

4. 주거지 특징으로 본 점토대토기

먼저 이곳 주거지는 해발 38m에서 42m사이에 집중분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중 直徑 600cm이상의 大型은 해발 40m~41m사이의 道路 주변에 주로 분포하고 그 이하의 小型은 대형 주거지 주위와 구릉 하단의 낮은 지점에 위치하고 있다. 점토대토기가 출토된 주거지는 제28호를 제외하면 모두 대형에 속하며 위치적으로는 제28호를 포함해서 비교적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다. 이 경우 주거지의 대소형 차이를 당장 계층관계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출토유물 가운데 제18, 35호를 비롯한 대형에서만 鐵器가 출토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이 유적에서는 철기의 출토 例가 매우 희귀하다 할 정도로 드문 것을 감안한다면 주거지 거주자의 經濟的, 社會的, 技能的 신분과도 유관할 것으로 판단되기도 한다. 그리고 점토대토기도 대부분 대형 주거지에서 출토되고 있다는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다음은 壁溝 시설이다. 이곳에서 벽구 시설은 주거지의 土壁을 축조하기 위한 기초시설로 추정되고 있는데 그 有無가 구별되고 있다. 그런데 벽구를 갖춘 시설이 확인되는 주거지는 대소형 간의 구별은 어려우나 그 분포는 구릉의 동서 장축선상에서 볼 때 남쪽과 북쪽으로 구분되어 나타났다. 즉 남쪽에는 벽구를 가진 것이 집중하는 경향이지만 반대로 북쪽은 매우 드문 편인데 제18, 27호에서 벽구 흔적이 확인되었다. 벽구의 유무가 용도상 주거지와 작업장, 창고 등과 같은 비주거지 시설로 구분되는 것인지 아니면 시기적인 차이를 의미하는 것인지는 자세하지 않다. 이보다 약간 이른 시기로 편년되는 梁山平山里 유적¹¹⁾에서는 모든 주거지에서 벽구 시설이 확인되었다. 이 유적의 경우 벽구가 없는 주거지 내부에서도 爐址를 배치하고 있는 것을 감안한다면 더욱 시기적인 차이에 주목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이 경우는 점토대토기가 출토된 주거지는 이곳 주거지 가운데 제18, 27호와 같이 비교적 이른 시기로 편년되는 것도 있지만 반대로 벽구가 없는 제35, 37호와 같이 늦은 시기로 편년되는 주거지에서 점토대토기가 출토되고 있어서 벽구의 유무와는 관계없이 오히려 점토대토기를 장기간 사용하였음을 의미하는 듯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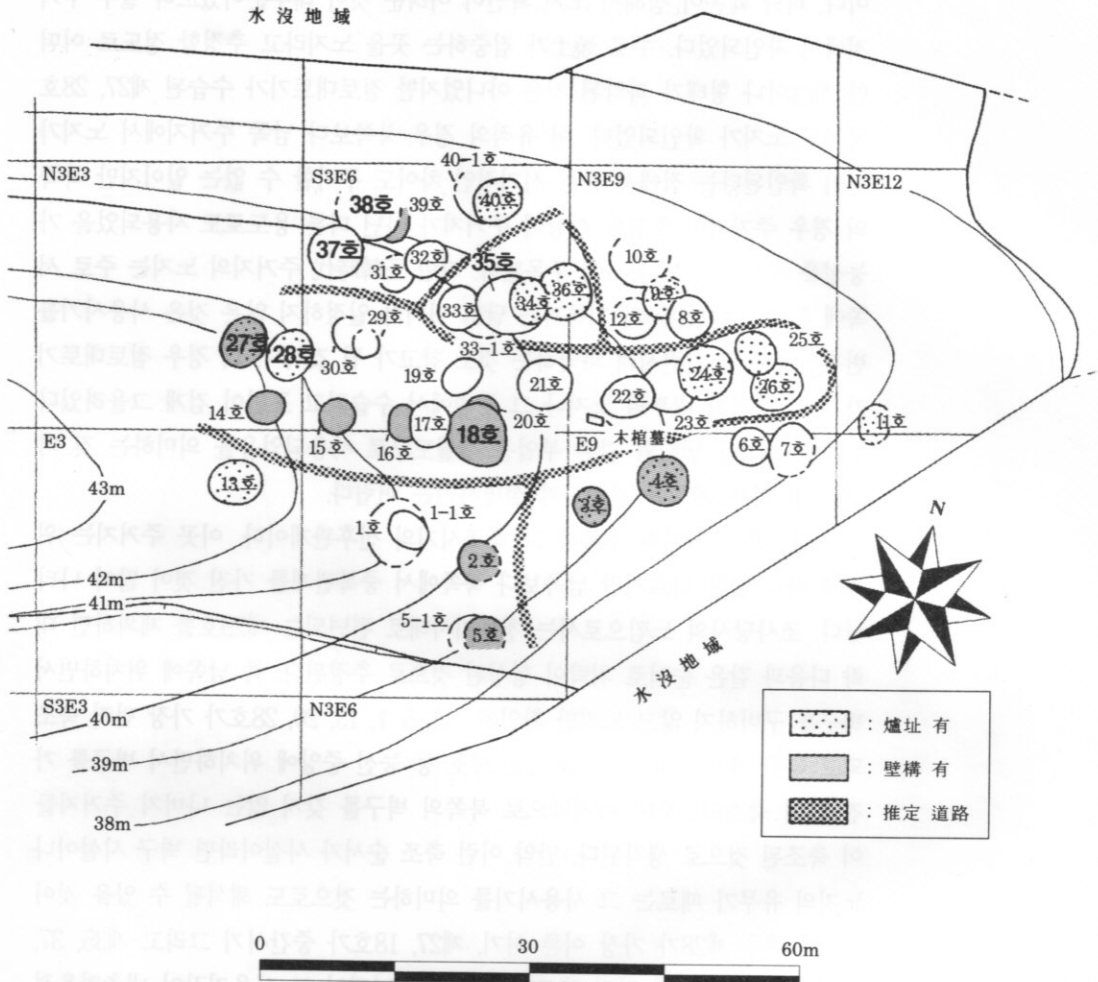
11) 沈奉謹, 『梁山平山里遺蹟』, 東亞大學校 博物館, 1998

다음 爐址이다. 노지는 주거지라는 것을 증명해주는 중요자료 중의 하나이다. 바닥 훼손이 심해서 노지 확인이 어려운 것이 대부분이었으나 일부 주거지에서 확인되었다. 주로 燒土가 집중하는 곳을 노지라고 추정할 정도로 어떠한 시설이나 형태가 파악된 것은 아니었지만 점토대토기가 수습된 제27, 28호에서도 노지가 확인되었다. 이 유적의 경우 북쪽보다 남쪽 주거지에서 노지가 많이 확인된다는 점에서 물론 시기적인 차이도 무시할 수 없는 일이지만 북쪽의 경우 주거지의 밀집된 현상이 주거지가 아닌 다른 용도로도 사용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해 주는 듯하여 주목된다. 다만 三韓時代 주거지의 노지는 주로 서쪽에 둔다는 弁辰傳¹²⁾의 기록과는 달리 위치가 일정하지 않은 것은 사용시기를 변진전 기록과 관련시켜 파악하는 것도 참고가 될 것이다. 이 경우 점토대토기가 주로 주거지 내부의 노지나 그 주변에서 수습되고 표면이 검게 그을려있는데서 솔이나 냄비와 같은 부엌용 생활도구로 사용되었음을 의미하는 것 외에 어떤 다른 해석을 관련시켜 설명하기는 어렵다.

다음은 주거지의 중복과 그 축조시기의 선후관계이다. 이곳 주거지는 위치에 따라 물론 다르지만 남쪽보다 북쪽에서 중복관계를 가진 것이 많이 나타났다. 조사당시의 느낌으로서는 청동기시대로 편년되는 제29호를 제외하면 대략 다음과 같은 순서로 취락이 형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즉 남쪽에 위치하면서 벽구를 구비하지 않고 노지만 확인된 제1, 5-1, 13, 20, 28호가 가장 먼저 축조되고 다음 제2~5, 14, 15, 16, 18, 27호 등 능선 중앙에 위치하면서 벽구를 가진 것이 축조되었으며 마지막으로 북쪽의 벽구를 갖지 않는 나머지 주거지들이 축조된 것으로 생각된다. 만약 이런 축조 순서가 사실이라면 벽구 시설이나 노지의 유무가 때로는 그 사용시기를 의미하는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 제28가 가장 이른 시기, 제27, 18호가 중간시기 그리고 제35, 37, 38호가 늦은 시기에 각각 축조된 것으로 편년되어 그 사용기간이 내촌리유적 존속기간 동안 연속되었음을 추측케 한다. 따라서 이곳 취락은 남쪽에서부터 소수의 주거지가 축조되기 시작하면서 동쪽 그리고 북쪽으로 점차 그 범위를 확대하게 되고 그 단위도 증가하여 나중에는 대집단 규모의 취락이 형성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주거지의 중복관계는 在地人의 주거문화 변화에 따른 순응의 결과인지 아니면 새로운 주민의 이동을 의미하는 것인지는 자세하지 않다. 다만 토기와 같은 생활도구의 변화가 단순하다는데서 전자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12) 『三國志』魏志東夷傳 - 弁辰傳

「弁辰 與辰韓雜居 亦有城郭 衣服居處 辰韓同 言語法俗相似 祠祭鬼神有異 旅竈皆在戶西」



第1圖 內村里遺蹟 住居址 分布圖

다음은 취락내부의 道路이다. 도로는 분포도에 나타난 것과 같이 주거지 사이에 도로망이 형성되었던 것이 짐작된다. 물론 주거지의 배치도 이 도로망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된다. 개별적인 주거지의 입구를 밝히기 어려웠던 것이 단점이지만 주로 도로망에 對面해서 입구가 배치되었을 것이 예상된다. 도로가 능선을 따라 고지에서 저지로 개설되면서 취락도 도로를 따라 계단

상으로 배치된 느낌을 주고 있다.

다음 여기에서 출토된 유물은 적갈색 연질, 회백색 연질, 회청색 경질토기 계통의 토기와 방추차, 어망추, 솥돌, 철기, 석기편 등이다. 대부분 파편들이어서 형태 파악이 어려운 것이지만 시루, 호, 옹, 유대완 등 일반생활도구인 것은 분명하다는데서 이 유적이 일반생활 취락지임을 짐작할 수 있게 한다. 물론 당시 산업은 농경이 중심이었다고 생각되지만 수렵과 어로도 병행하였을 것이 예상된다. 특히 점토대토기는 적갈색 연질의 옹형 또는 발형의 구연부에서만 확인되고 있어서 전대의 무문토기 전통을 계승하는 느낌을 강하게 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내촌리유적은 지식묘와 함께 축조된 것으로 추정되는 청동기 시대 주거지(제29호) 1기를 제외하면 그 중심시기는 모두 삼한시대 후기의 2-3세기경에 형성된 취락지라고 생각된다. 그것은 이곳에서 출토된 토기의 특징이 우리대학교에서 수년 전에 조사하여 보고한 梁山 平山里유적¹³⁾이나 金海 府院洞 C地區유적¹⁴⁾에서 출토된 것보다 시기적으로 늦고 金海 府院洞A地區¹⁵⁾나 固城 東外洞貝塚¹⁶⁾보다 이르다는 것을 참고한 것이다.

5. 끝맺는말

이상의 사실들을 종합해서 필자는 우선 삼한시대로 편년되는 옹형 또는 발형토기의 외반된 구연부 외측 또는 내측에 단면 장방형의 점토대를 보강한 특징을 가진 토기를 유적의 이름을 따서 《내촌리식토기》로 명명한다. 그리고 여기서는 내촌리식토기가 출토되는 주거지와 토기의 특징을 중심으로 그 대략을 정리하여 끝맺는 말에 대신코자 한다.

첫째 이 유적에서는 주로 대형에서 내촌리식토기가 출토되고 제18, 35호의 경우는 철부가 함께 출토되는 등 내촌리식토기 사용자가 당시 취락 가운데서는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상위신분에 해당하였던 것으로 추정되어진다. 그러나 이 토기가 일상생활에서 어느 가정이나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오늘날의 숟가락이나 냄비와 같은 취사도구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즉 대부분의 토기가 표면이 검게 그을린다는지 우각형 손잡이를 부착하고

13) 沈奉謹, 『梁山平山里遺蹟』, 東亞大學校 博物館, 1998

14) 沈奉謹, 『金海府院洞遺蹟』, 東亞大學校 博物館, 1981

15) 沈奉謹, 『金海府院洞遺蹟』, 東亞大學校 博物館, 1981

16) 金東鎬, 『固城東外洞貝塚』, 東亞大學校 博物館, 1974

노지 주변에서 수습되는 등 불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 흔적을 남기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인접한 상촌리 청동기시대 주거지에서도 발형의 점토대토기가 출토되었는데 역시 노지에서 저부에 불 맞은 흔적을 남기고 있어서 슬과 같은 취사도구로 추정하고 있다.¹⁷⁾ 따라서 당시 계층간 취사도구에 있어서 형태상 차이가 인정된다는 전제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위의 가설은 인정하기 어렵게 된다. 다만 사실여부와 관계없이 앞으로 다른 유적에서도 기종간의 용도와 사용자의 신분문제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수집된다면 이런 가설의 진위파악이 한결 용이할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주거지의 중복관계나 벽구시설, 동반유물의 특징 등에서 살펴보면 내촌리식토기의 유행기간은 내촌리유적의 초창기부터 마지막단계까지 전기간에 걸쳐 제작해서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것을 확인 또는 검증해 주는 것이 내촌리식토기가 갖는 장점 중의 하나이다. 즉 삼각형 점토대에서 외반된 장방형 점토대로, 그리고 장방형 점토대는 구연부 외측에서 내측으로 위치를 바꾸고 있다는 점이 선후관계를 분명히 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이런 변화과정은 내촌리 취락내 주민들의 연계성과 정통성을 보증해 주는 하나의 단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내촌리식토기의 제작과정에서 나타난 장점과 목적이다. 점토대토기는 신석기시대에서 청동기시대를 거쳐 이곳 내촌리나 김해부원동유적¹⁸⁾과 같은 삼한시대 유적에서도 종종 볼 수 있는 토기제작기법 중의 하나이다. 점토대는 그 형태와 부착된 위치, 방법 등에 따라 각각 다르게 명칭 되기도 하고 지역성이나 시기성, 용도에 따라 구분해서 설명하기도 한다. 즉 점토대는 기벽 내면 또는 외면, 내외양면 등 부착된 위치가 상이하며 단면 형태도 장방형, 원형, 삼각형으로 나누어지며 그 위에 새김문을 넣는 등 다양한 제작수법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명칭도 이중구연토기, 원형 점토대토기, 삼각형 점토대토기, 용기 또는 용선문토기, 새김돌대문토기 등 다양한 편이다. 그러나 점토대는 일부 토기 성형시 점토대 간의 이음부위에 부착하여 이음을 보다 튼튼히 하고 이음선을 미장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구연부에 부착하여 연약한 기벽을 보강하고 붙잡기 편리하도록 조치한 느낌이 든다. 그것은 우선 토기 성형 또는 소성 등 제작과정이나 평소 사용과정에서 균열이나 파손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점토대를 보강한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점토대는 지금까지 수납법, 윤적법, 권상법 등 그 제작수법이 유추했던 원시단계에 주로 사용한 수법이므로 내촌리

17) 沈奉謹, 「晋州上村里出土 無文土器 新例」 『文物研究』3, 동아시아문화연구원, 1999

18) 沈奉謹, 『金海府院洞遺蹟』, 東亞大學校 博物館, 1981

유적에서는 적갈색 연질토기에서만 그 특징이 나타나고 보다 발달된 회청색토기 계통에서는 확인하기 어렵다. 결국 점토대의 장점이나 목적은 제작시 또는 사용시에 구연부의 얇은 기벽을 보호하고 붙잡는데 편리하도록 조치한 수단이며 부수적으로는 미장효과도 없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마지막 내촌리토기의 계통이다. 사실 점토대 보강수법은 전기한 것과 같이 용기 또는 용선문토기 등 신석기시대 초창기토기를 비롯해서 청동기시대의 각형토기나 공렬토기, 미송리형토기 등에서도 나타나는 제작기법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여기서는 그 기원을 신석기시대나 청동기시대까지 소급하지 않고 시기적으로 가장 가까운 삼한시대 전기유적에서 출토되고 있는 단면 원형이나 삼각형 점토대 구연을 가진 토기와 관련시켜 설명하기로 한다. 즉 대전괴정동유적¹⁹⁾에서처럼 한국식동검과 함께 출토되는 단면 원형의 점토대토기는 요령성 정가와자유적²⁰⁾이나 평양남경유적²¹⁾에서 그 원류로 추정되는 고식의 것이 알려져 있다. 그리고 이것이 다시 변형하여 나타나는 것이 사천 늑도유적에서 회청색 연경질토기, 야요이계토기, 낙랑계토기 등과 공반해서 출토되는 단면 삼각형 점토대토기이다. 여기에 소개된 내촌리식토기는 삼각형 점토대를 가진 늑도식토기가 다시 변형되어 나타난 것이라고 추측된다. 그러나 이런 가설의 성립에는 한 두 가지 선결되어야 할 필요충족 조건이 있다. 그 하나는 늑도식토기와 내촌리식토기 사이의 편년적 공간성 유무 확인이고, 다른 하나는 점토대의 형태가 삼각형에서 장방형으로, 부착부위가 구연부 외측에서 내측으로 바뀌어지는 변화과정에 대한 이론적 뒷받침이다. 이 조건들은 앞으로 검토되어야 할 중요과제들이다. 다만 여기서 당장 예상할 수 있는 것은 늑도식과 내촌리식 사이에 일정 형식의 토기군이 누락되었다는 것이다. 즉 최소한 기원 1세기경에 해당하는 유적에서 점토대토기를 발견하는 것이다. 그리고 형태상으로는 늑도식토기의 구연 외벽에 부착된 삼각형 점토대가 점차 변화해서 그 끝은 외반하고 점토대 자체는 좁아져서 장방형으로 바뀌게 된다는 변형과정을 상정해 볼 수 있다. 보다 적극적인 설명은 늑도식과 내촌리식 사이의 중간단계 토기이다. 한편 야요이토기 가운데 城の越式이나 須玖式²²⁾도 늑도식의 삼각형 점토대에서 변형된 것으로 생각된다. 또 부착부위가 외측에서 내측으로 바뀐 것은 낙랑토기와 관련지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것은 사천늑도나 평양정백동²³⁾ 출토

19) 李殷昌, 「大田槐亭洞青銅器文化의 研究」, 『亞細亞研究』 X I - 2, 19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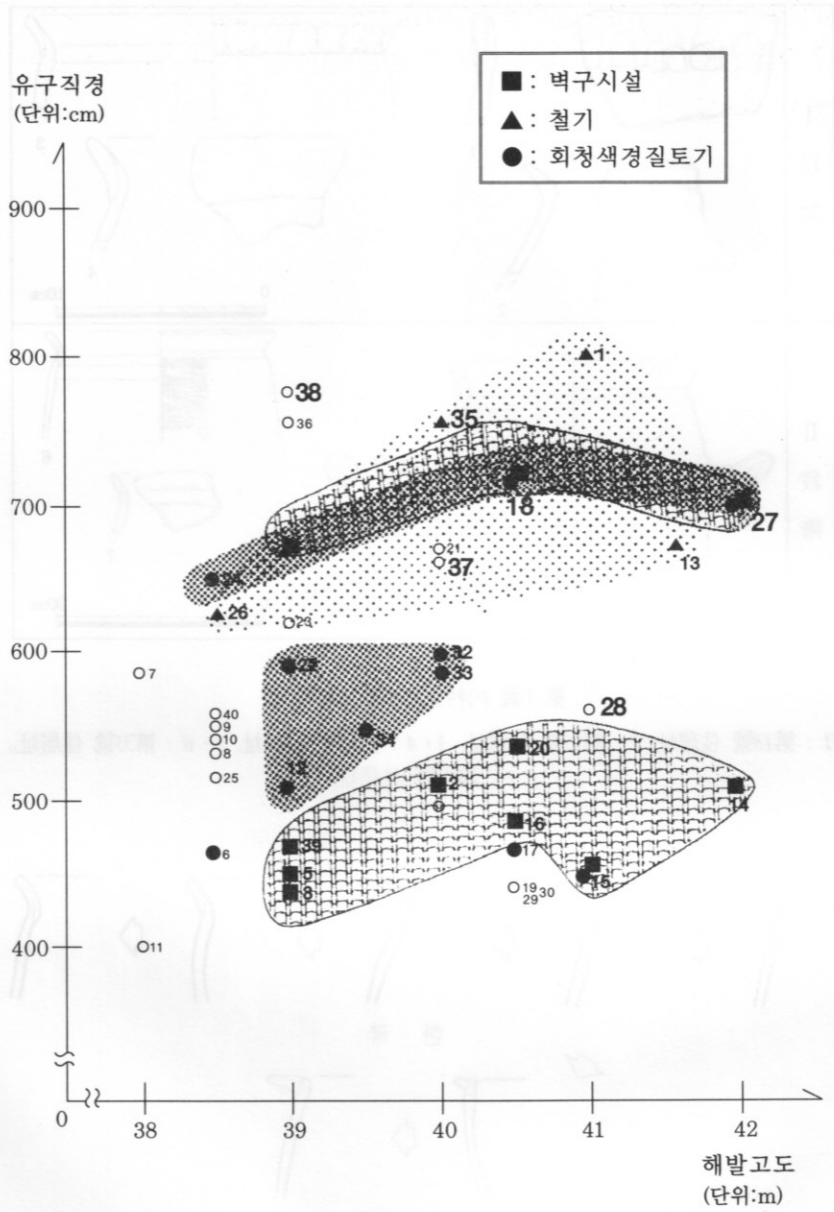
20) 沈陽故宮博物館, 「沈陽鄭家洼子的兩座青銅器時代墓葬」, 考古學報 1975 第1期, 1975

21) 과학·백과사전출판사 『평양남경유적에 관한 연구』, 19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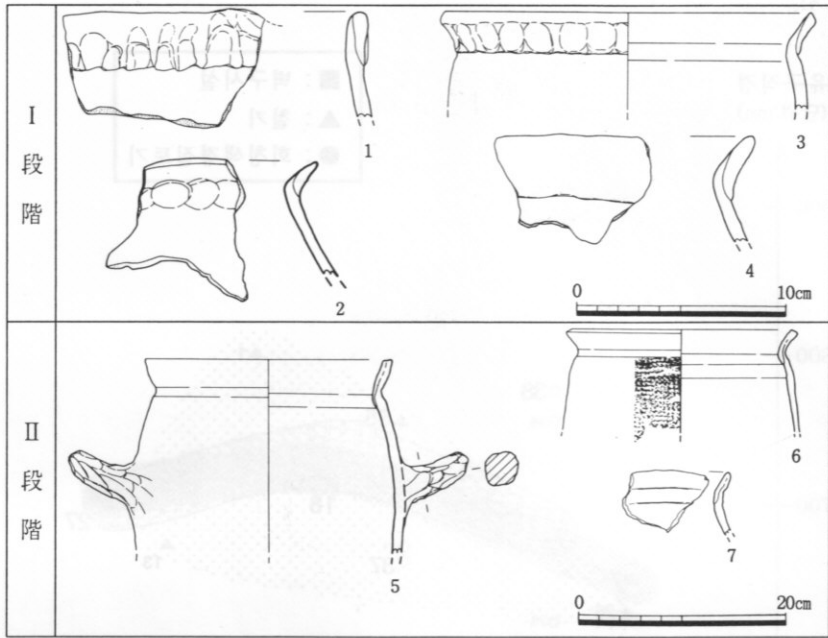
22) 武末純一, 「須玖式土器」, 『彌生文化의 研究(彌生土器Ⅱ)』, 雄山閣出版, 1987

23) 榎本龜次郎, 「貞柏里第五十九號墳」, 『古蹟調査概報』, 朝鮮古蹟研究會, 1936

낙랑토기 가운데 구연부 내측에 점토대를 보강한 것을 종종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내촌리식토기는 늑도식토기의 변형과정에서 생성된 하나의 소산물이라고 우선 말해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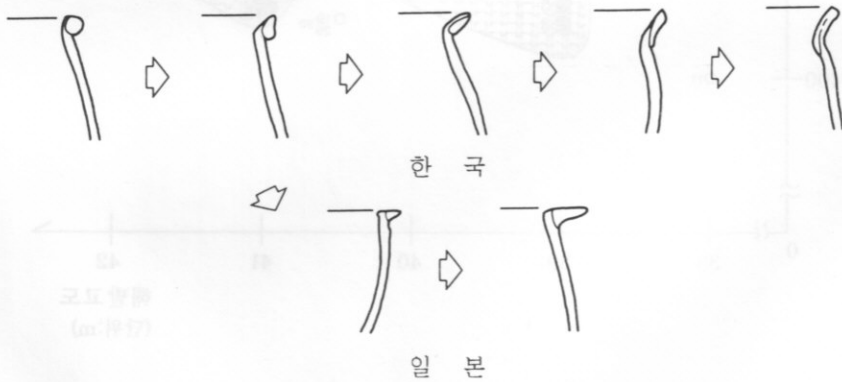


第 2 圖 住居址 位置와 規模에 따른 相關圖



第3圖 內村里式土器 編年圖

(1 : 第18號 住居址, 2 : 第27號 住居址, 3·4 : 第28號 住居址, 5·6 : 第35號 住居址,
7 : 第37號 住居址)



第4圖 粘土帶口緣 土器의 口緣部 形態 變化過程圖